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음 3월 2일) 제17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신산업 '새만금이 최적지'

시장전망도 '긍정적' 도, 대선공약에 반영 신산업 적극 추진해야 "정부부처 반영에 최선"

전북도내 자동차,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공약에 반영된 새만금을 활용한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상용차 메이커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산업 기회창출과 연료소모량 감소에 따른 환경규제 대응 및 교통정체 문제해결, 승객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버스나 대형 트럭 등 상용차의 자율주행과 군집주행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시장전망도 긍정적이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25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을 420억달러 규모로 보고 2035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는 자율주행차로 전망한데 이어, 지난 2월 미국의 MIT는 사회 다방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10대 혁신기술 중 두번째로 향후 5~10년 적용될 것으로 예측한 '자율주행 트럭'을 포함하기도 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벤츠와 스카니아, 볼보 등 6개 회사가 참

가한 '유럽 트럭 플래투닝 챌린지 2016'에서는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한 군집주행 트럭들이 10~15m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600km~2000km 주행에 성공해 물류의 중심인 네덜란드 항구도시 로테르담에 무사히 집결했다. 상용차의 자율주행 상용화가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용차 자율주행 산업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려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 초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한데,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차 실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하는 복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국비 2,2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부품업체의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상용차 자율(군집) 주행기반 융복합 기술개발, 연구지원 인프라구축 및 융복합 협업촉진 등 기 구축된 상용차 생산기반 인프라와 연계하여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신산업의 글로벌 메카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신산업이 국내 상용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에서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 공약사업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북도를 방문한 주요 대선주자들은 새만금과 전북 뚝 행기 등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새만금에 정부가 먼저 기반시설을 투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새만금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과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선언한 전북도 정책추진의 후폭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선 예비주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새만금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과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선언한 전북도 정책추진의 후폭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선 예비주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실치즈 관련 방문객이 연간 20만명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상생방안을 모색을 통해 임실치즈 체험관광의 지속적인 성장방향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임실치즈마을은 2008년부터 주민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치즈체험관광을 도입해 국내 농촌체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2011년 테마파크 개원과 동시에 마을 방문객수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테마파크와의 상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서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실N치즈 지역농식품산도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임실치즈의 공간적 범위를 임실군 전역으로 확대 단군의 '진안홍삼 산업 활성화', 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최선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 이승철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새만금 수목원 조성 및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2018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비롯해 6개 부처 실국장을 만나 예타대상 사업 및 19대 대선공약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중점 건의 등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관련기사 2면>

임실치즈, 국내 대표 체험관광 1번지로 키운다

도, 치즈테마파크-치즈마을 상생방안 심화토론회 열어

임실N치즈 6차산업화 지구 조성으로 임실치즈를 전국적인 6차산업 성공모델로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체험관광 1번지로 조성한다.

전북도는 임실치즈를 테마로 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체험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8일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임실치즈테마파크-치즈마을 상생방안 심화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런 토론회를 실시한 배경에는 지난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으로 '동부권 6개 시군 순회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발굴로 국가예산 사업화, 도 시책화 등의 성과를 거둔데 대한 연장선이다.

또한 각 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핵심사업에 대해 도, 시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진안군의 '진안홍삼 산업 활성화', 무

주권의 '태권도원 주변 개발 및 관광활성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회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실치즈 관련 방문객이 연간 20만명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상생방안을 모색을 통해 임실치즈 체험관광의 지속적인 성장방향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임실치즈마을은 2008년부터 주민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치즈체험관광을 도입해 국내 농촌체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2011년 테마파크 개원과 동시에 마을 방문객수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테마파크와의 상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서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실N치즈 지역농식품산도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임실치즈의 공간적 범위를 임실군 전역으로 확대 단군의 '진안홍삼 산업 활성화', 무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의 농촌자원 융복합 방안으로 임실치즈테마공원, 정미원을 조성해 임실치즈를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치즈산업 고도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임실N치즈 6차산업화 지구 조성으로 전국적인 6차산업 성공모델을 구축해 치즈마을을 치즈산업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치즈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방안, 낙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신규 농가 지원에 대한 의견이 더해졌다.

김일재 부지사는 "올해 심화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전 인프라의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동부권 시군들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동부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의 견인할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시군 핵심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7면 - 내년 예산, 4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 / 16면 - 농지연금사업이란?

내달부터 도내 4개 도립공원 친환경 정비

19억600만원 투입 안전시설 보강

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을 도민은 물론 탐방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4월부터 친환경 정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전북연구원, 전북산악연맹, 전북생명의 숲 등이 참여하는 '도립공원 생태복원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탐방로 훼손 구간과 안전여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컨설팅에서 탐방로 및 시설물의 정비는 공원관리청 임장이 아닌 탐방객의 눈높이로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고, 특히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탐방객 안전사

고 예방과 훼손되거나 보강이 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해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올해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도립공원에 19억600만원을 투입해 훼손된 탐방로 정비, 안전시설 보강, 편의시설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공원별로 상사화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탐방객의 안전, 편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이번 컨설팅 결과를 최대한 정비 사업설계에 반영해 선진화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http://council.jinan.go.kr>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제7대 진안군의회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